

## ACE 8 :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재림, 부활과 심판

요한계시록 20 : 6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도 신경 강해의 여덟 번째 순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구절을 가지고 재림과 부활과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 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광경을 넋을 놓고 바라 볼 때, 흰 옷을 입은 사람 둘이 옆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 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작금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말하길, 예수님이 무슨 재림을 하느냐, 그런 구시대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회가 개량되고 좋아지면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의미라고 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온다고 하는 것은, 올라 갈 때와 마찬가지로, 유형적으로, 눈에 보이게, 승천하시었던 감람산으로 다시 오신다는 말입니다.

여러 분들에게서는 이 말을 그대로 확실히 문자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실 때와 똑같이 눈에 보이게, 유형적으로 감람산으로 재림하십니다.

저는 오늘 재림에 있을 일을 논함에 있어

1. 종말론(Eschatology)에 대해
2. 재림전애 있을 일, 3. 재림 4. 천년 왕국
5. 백보좌 심판 6. 신천 신지(New Heaven & New Earth)에 대해 공부를 하겠습니다.

## 1. 종말론(Eschatology)에 대해

종말론은 개인적 종말론과 일반적 종말론으로 나누는데, 개인적 종말론은 개인의 죽음 후의 상태를 설명하고, 일반적 종말론은 세계의 종말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오늘은 일반적 종말론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고, 개인적 종말론은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이며,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칼빈은 성경 65 권의 주석은 다 썼으면서도 유독 요한 계시록의 주석은 난해하다고 하며 주석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만큼 일반적 종말론대하여 설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국의 장로교회와 미국에서 채택되는 일반적 이론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일반적 종말론의 이론은 계시록 20 장에 나오는 천년 왕국을 중심으로 하여,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가, 천년 왕국 후에 재림하시는가에 따라, **전천년설(Pre-Millennialism)**과 **후천년설(Post-Millennialism)**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전천년설에서도, 7 년 환란 전에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환란전 전천년설과, 7 년 환란 후에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환란후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또 시간적으로 한정된 천년 왕국은 없다고 하는 **무천년설(Amillennialism)**이 있습니다. 앞의 두 가지가 가장 세력이 있는 현재의 말세론이나, 가장 인기 있게 미국에 대중적으로 퍼져 있는 이론은 **세대론적(Dispensational) 환란전 전천년설**입니다.

이 세대론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있는 대로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저는 한국의 장로교회와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환란 후 전천년설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2. 재림 전에 있을 일들

예수님께서서는 재림 전에 있을 일에 대하여 마 24 장에서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마가 13 장, 누가 21 장). 재림 전에 있을 사건들을 개략적으로 말하면, 복음의 세계적 전파, 이스라엘의 전국적 회심(슌 12:10-14; 고후 3:15-16; 롬 11:25-29), 대배교와 대환란(마 24:9-12, 21-24), 적그리스도의 출현, 징조와 기사(마 24:6,7; 마 24:29-30)등을 의미합니다. 이중에서 몇 가지만 뽑아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 2.1 복음의 세계적 전파

이방인들의 총만한 수가 복음에 참여하여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을 말합니다(롬 11:25). 그러기 위해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사실을

**마태복음 24 : 14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 2.2 적그리스도(Anti-Christ)의 출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생길 큰 일 중의 하나가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2.2.1 요일 2:18 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쓰던 시절인, A. D. 90 년부터 벌써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세(The Last Time)는 예수님의 초림(1st Coming)으로 부터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요한일서 2 : 18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렀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줄 아노라**

2.2.2 적그리스도가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쓰던 시절부터 있었다면 적그리스도는 그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요한일서 4 : 2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요한일서 4 : 3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이서 1 : 7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사도 요한 때의 적그리스도는 영지 주의(Gnosticism)와 가현설(Docetism)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기독교 안에 있던 이단으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였습니다.

2.2.3 적그리스도는 요일 2:22-23 을 보면,

요한일서 2 : 22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요한일서 2 : 23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의 메시야직을 부인하는 Ebionites 이단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서 한 사람의 선지자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은 후에 양자론(Adoptionism), Arius 주의 - 여호와의 증인의 조상-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A. D. 451 년 Chalcedon 회의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라고 선언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단의 잡초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 역사적으로 고백하던 믿음의 정확요 꽃이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에서 한 발자국도 후퇴해선 안되고, 이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도 전수해야 합니다.

지금 사양길에 있는 대표적 적그리스도가 문선명입니다. 문선명이는 예수님이 실패했기 때문에 재림주로서 자기가 왔다고 터무니없는 거짓을 주장했습니다. 자기의 애들은 원죄없이 태어난 최초의 애들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원죄없이 태어났다고 하는 문선명이의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는 재림주가 아닌 평범한 인간이라고 고백하고, 한 딸은 이혼했습니다. 말세의 징조가 이런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일어나 흉용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벌써 말세는 시작되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가시고 난 후 세상에 많이 왔습니다. 이런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있으리라 한 사실들이 있는 것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재촉할 뿐입니다.

### 2.3 환란(Tribulation)과 배교(Apostasy)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환란과 배교에 대하여는, 마태 복음 24 장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교 할 것에 대하여는,

**마태복음 24 : 10 그 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마태복음 24 : 11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마태복음 24 : 12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환란에 대하여는,

**마태복음 24 : 21 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태복음 24 : 22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것을 7년 환란이라고 합니다.

## 3. 재림(2nd Coming)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것으로 완성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재림으로 절정을 이루며 완성됩니다.

### 3.1 재림의 시기

이 7년 환란 끝에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서는 마태 복음 24:29-31에서

마태복음 24 : 29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마태복음 24 : 30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4 : 31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재림의 시기에 대하여 **그 날 환난 후에** 라고 하는 개략적인 추측만 할 수 있을 뿐 **그 날과 그 시**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재림의 시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사도행전 1 : 6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사도행전 1 : 7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

사도행전 1 :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 아래 두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마 24:36), 때와 기한을 자기의 입맛에 따라 죽집게처럼 해석하여 “어느 날 어느 시” 라고 하여, 성도들을 혼란시킨 일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재림의 시기는 하나님께 맡기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일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 3.2 재림시 있을 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때에 주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서 재림을 맞는 자들을 변화한 몸으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몸의 부활입니다.

### 3.2.1 주안에서 죽은 자들의 몸의 부활

우리의 부활은 영적 부활과 육체의 부활로 두 단계를 거칩니다. 영적 부활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의 영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현재에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나, 육체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시 미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부활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몸은 흠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재림시에 있을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 : 5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한 말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시 있을 우리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의 부활을 잠들었다가 일어 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 : 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 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몸으로 부활은 우리의 몸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길,

**고린도전서 15 : 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 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 : 21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고린도전서 15 : 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 3.2.2 공중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렇게 흠으로 돌아간 우리 몸은, 잠자던 상태에서 깨어 일어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길,

**데살로니가전 4 : 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전 4 : 17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초림과 재림의 다른 점은 초림하실 때는 마리아를 통해 마굿간에 비천하게 나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데살로니가전 4 : 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신다**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왕적 위엄을 가지고, 영화롭게 변화된 몸으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시 몸의 부활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 때 반드시 죽은 영이 영생을 얻어 다시 살아나는 영적 부활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 때 영적 부활을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시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천년 왕국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백보좌 심판으로 나아가 영원히 지옥에 던져 집니다.

## 4. 천년 왕국

### 4.1 천년 왕국

예수님의 공중 재림에 참여한 부활한 성도들은 이 땅으로 강림하여 예수님과 성도들의 천년 왕국의 통치가 베풀어 집니다. ,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0 : 1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요한계시록 20 : 2 옹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일천  
년 동안 결박하여

요한계시록 20 : 3 무저갱에 던져 잡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간  
놓이리라

요한계시록 20 : 4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 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요한계시록 20 : 5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요한계시록 20 : 6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여기서 성도들의 몸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이유는, 성도들의 몸의 부활이 먼저 나오고,  
다음에 불신자들의 몸의 부활이(계시록의 20:12) 나중에 따라 오기 때문입니다(이중부활). 몸의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에 의해 천년왕국의 치세가 베풀어 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천년왕국입니다.

#### 4.2 사탄이 잠시 놓여남

천년 왕국 끝에 사탄이 잠시 놓이나, 다시 불못과 유황불에 던지워집니다.

요한계시록 20 : 7 천년이 차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요한계시록 20 : 8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요한계시록 20 : 9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요한계시록 20 : 10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 5. 백보좌 심판

사탄이 결박되어 불못에 던져진 후 역사상 존재한 모든 불신자들이 몸으로 부활하여 백보좌 심판으로 나아옵니다. 백보좌 심판 후에 불신자들은 모두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계시록 20:11-15 에는,

요한계시록 20 : 11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요한계시록 20 : 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른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요한계시록 20 : 13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요한계시록 20 : 14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요한계시록 20 : 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 백보좌 심판은 천년 왕국 후에 있을 심판으로 인자이신 예수님을 심판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간들에 대한 심판주로 세우심이 당연함은 예수님은 성육신하시어 인간으로 오셨었기 때문입니다.

심판대 앞에는 두 책이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생명 책입니다. 생명 책 안에는 생명을 얻을 자들의 이름만 있습니다.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두 번째 책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책 안에는 그 사람이 살아서 행한 모든 행위가 다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에 기록 된 대로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그 경중에 따라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백보좌 심판에는 불신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신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앉아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에 참여 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6 : 2-3 에서

**고린도전서 6 : 2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고린도전서 6 : 3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하고 또,

**요한계시록 20 : 4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합니다.

여기서 불신자는 영원히 지옥으로 가고, 신자는 비록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백보좌 심판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衡平性)에 위배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나 하면 이 세상을 살 때 죄를 짓고 산 것은 신자나 불신자가 마찬가지로 할지라도, 신자는 그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선언되었고, 불신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속죄 받을 길이 없으므로 죄의 형벌을 스스로 담당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 세상을 살 때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셔서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믿음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죄용서와 함께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칭의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5 :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영적 부활과 몸의 부활이 있음과 같이, 사망도 우리의 몸이 죽는 첫번째 사망과, 백보좌 심판 후에 영원히 불못으로 가는 두번째 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히 불못으로 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며, 백보좌 심판 후에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영적 부활과 육체의 부활 사이에서, 신자건 불신자건 간에 다같이 몸이 일단 죽는, 첫째 사망을 체험합니다. 우리는 첫째 사망이 가장 두려운 것으로 생각하지만, 더욱 무서운 것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심판의 부활로 몸만 부활하여 영원히 불못으로 떨어지는 둘째 사망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살아 있는 사람에겐 한 가지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가기 위해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불못에 던지우는 둘째 사망을 택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 6. 신천신지

백보좌 심판 후에 몸으로 부활한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삽니다.

**요한계시록 21 : 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믿는 자들은 몸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신천신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런 미래의 기업에 대한 보증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에베소서 1 : 13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 : 14 이는 우리의 기업에 보증(the earnest of our inheritance)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증으로 도장을 찍은 것처럼, 받을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인을 치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그 마음에 가진 사람은 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땅에 것만 바라보며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합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 6.1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광

신천신지에서 성도들이 참여하는 영광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 : 41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주를 위해 고난을 받았느냐, 얼마나 주를 위해 일을 하였느냐에 따라 영광을 다르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로마서 8 : 16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로마서 8 : 17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로마서 8 : 18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몸이 생노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몸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신 부모님들이나,

형제 자매, 자녀들을 영광의 몸으로 다시 만난다고 하는 것은 기쁜 일 중에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그 때 예수님께서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시고, 그 후론 사망이나 고통하는 것이나 애통함이나 아픔이 다시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던 수많은 성현군자가 이 축복에 들어 가고자 추구하였으나 들어 가지 못하였습니다. 불노초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진시황도 죽었고,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석가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이 한 분 있는데 그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 주셔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럼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예수님을 믿어, 어찌하든지 부활에 참여하고 상받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 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 을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

5. Retweet 를 하실 분은 (꼭 부탁드립니다만), 여러분의 home 로 가셔서, 글을 쓰는 Box 에 RT @ 를 type 하신 후 , space 한 후, Retweet 할 내용을 paste 하시면 됨.